

세이프온, 안전골든벨 개최...“어린이 안전의식 쑥쑥”

광주고실초 학생 143명 참여...교통·생활 안전교육 병행 OX퀴즈·문제 풀이 등 실생활 수칙 체득...유관기관 협력

교통·사회 안전 봉사단체인 세이프온은 8일 광주 광산구 고실초등학교 강당에서 ‘찾아가는 교통·생활 안전골든벨 및 안전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실초등학교 4학년 학생 143명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와 교사, 교통문화연구원, 손해보험협회, 광남일보,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이종표 교수가 진행한 교통안전 교육으로 시작됐다. 학생들은 횡단보도

안전 보행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배우고 기념품도 받았다. 이어 열린 ‘안전골든벨’에서는 교통·생활 안전과 관련된 OX퀴즈와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풀며 실력을 겨뤘다. 학생들은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 지식을 익히고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생 전원에게는 질서와 배려상이 수여됐으며, 최후의 1인으로 선정된 최준수 학생에게는 광주시

교통문화연구원장상이 주어졌다. 이어 2위 이송 학생은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 본부장상, 3위 이아린 학생은 광남일보 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며 상장과 상품은 추후 전달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교통 법규와 생활 안전 수칙을 퀴즈 형식으로 익히며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이프온 관계자는 “참여 학생들이 교통·생활 안전 홍보대사로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세이프온은 8일 광주 광산구 고실초등학교 강당에서 ‘찾아가는 교통·생활 안전골든벨 및 안전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세이프온

광산구, 고려인 역사 기록물 보존 공로 ‘국회의장상’



국회도서관과 협력...월곡고려인문화관 ‘국회도서관장상’

광주 광산구가 고려인 역사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광산구는 국회도서관과의 협력 성과로 ‘제24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국회도서관과 함께 고려인 역사 유물의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핵심은 고려인 역사 유물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으로, 국회도서관 이용자들이 관련 자료를 학술 연구와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데 있다. 이와 함께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의 주요 역사 기록물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해 ‘사이버 전시관’을 구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려인 동포의 역사와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구는 국회도서관과 디지털 정보 자원을 공유하며 고려인 역사 유물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확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도 고려인 동포의 강제이주와 독립운동 역사를 알린 공로로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했다. 구 관계자는 “국회도서관과의 협력과 사이버 전시관 구축을 통해 고려인 삶과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려인 역사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초록우산 고액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회원으로 위촉된 김창승 대로스틸(주) 대표(가운데)와 이종열 홍보대사(오른쪽), 변정근 본부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창승 대로스틸(주) 대표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가입...1억원 약정

621호 회원 위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8일 김창승 대로스틸(주) 대표를 초록우산 고액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린노블클럽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후원자들로 구성된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후원자 모임이다. 김창승 대표는 이번 약정을 통해 전국 621호, 광주지역 29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나눔은 오는 5월29일로 예정된 ‘초록우산 광주청년후원회’ 창단을

앞두고 이뤄졌다. 김 대표는 광주청년후원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으로, 회장 취임에 앞서 슬 선수범하는 나눔을 실천한 셈이다. 김창승 대표는 “올해 초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로부터 광주청년후원회 회장으로 제안을 받고,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그린노블클럽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은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김창승에 감사하다”며 “이번 나눔이 지역 내 30~40대 젊은 세대에 귀 울렸다. 이번 나눔은 오는 5월29일로 예정된 ‘초록우산 광주청년후원회’ 창단을

무안군 적극 행정...옛 전우 46년만에 재회

순천 거주 김성곤씨, 군청·면사무소 안내로 만나

무안군 공직자들의 민원 응대로 46년 만에 옛 전우가 재회한 사연이 알려지며 전란한 감동을 주고 있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날 31일 무안군 홈페이지 ‘청찬함시다’ 게시판에는 ‘46년 만의 만남을 이뤄준 무안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김성곤씨(순천 거주)는 최근 업무차 무안군을 방문했다가 군 북부사무시절 함께했던 동기가 현경면에 거주했던 기억이 떠올라 오랜 인연을 찾기 위해 주소문에 나섰다. 김씨는 산림공원을 찾아 정재석 팀장에게 사연을 전했고, 정 팀장은 현경면사무소를 안내했다. 이후 현경면사무소를 찾은 김씨는 민원실에서 46년 전 군대 동기였던 박정배씨의 행방을 물었다. 이에 정은영 주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한사항을 설명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탐문을 이어갔다. 그 결과 ‘박정배’라는 이름의 주민이 2명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군 북부 시절 인연 여부를 확인해 마침내 동기를 찾았다. 연락을 받은 박정배씨는 곧바로 면사무소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46년 만에 극적



순천에 거주하는 김성곤씨(왼쪽)가 무안군과 현경면 공직자들의 도움으로 옛 전우였던 박정배씨를 46년만에 만났다.

으로 재회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도 감동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옛 전우인 두 사람은 순천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김성곤씨는 “처음 상담을 해준 정재석 팀장과 끝까지 도와준 정은영 주무관 덕분에 오랜 인연을 찾았다”며 “무안군의 친절함 행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군청 정재석 팀장과 정은영 주무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은 물론, 무안을 찾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무안=이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 서구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새봄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입맛을 돋우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새봄맞이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 서구 새마을부녀회 ‘김치 나눔’ 봉사

저소득 가정 등에 파·열무김치 150박스 전달

광주 서구새마을부녀회(회장 황경희)는 최근 새봄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입맛을 돋우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새봄맞이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몹은 김치 대신 신선한 제철 채소로 만든 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나눔에 필요한 비용은 외부 지원 없이 서구새마을부녀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부담으로 마련돼 그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황경희 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들은 이날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파와 열무 등 제철 채소를 직접 다듬고 양념을 준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정성껏 담긴 파김

치와 열무김치 150박스는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황경희 서구새마을부녀회장은 “부녀회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기금으로 이웃들에게 봄의 생동감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새마을부녀회는 매년 계절별 김치 나눔, 밑반찬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전남농기원, 청년 창농기업 애로사항 청취

미르당 방문...운영 현황 등

전남농업기술원이 장성군 청년 창농기업인 ‘미르당(대표 홍서연)’을 방문해 기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미르당’은 쌀과 과일 등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떡 디저트 ‘롤리슈’와 전용 기기 ‘롤리광광’을 자체 개발한 기업으

로, 지역 농업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카페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홍서연 대표는 2010년 청년 창업으로 시작해 2021년 농촌 융복합 디지털 카페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어 2023년 ‘사과떡’과 ‘호박떡’을 출시하고, 2025년 ‘롤리슈’를 개발하는 등 로컬자원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미르당은 전남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



인 경쟁력 제고사업과 청년창업농자립교육을 통해 기반을 다졌으며, 지난해에는 ‘청년농업인 창업 스페셜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 창농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 3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벤처포럼, 전남창업기술지주, 한국가치투자, 에이아이씨엔엠, 아이디어파트너스, 글로벌경영아카데미 등과 함께 청년농업인 스페셜업 지원을 위한 다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창농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김행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청년농업인이 성공적인 창농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생명 안전망 구축...자치구와 캠페인

생애주기 맞춤형 예방 활동 전개 자살예방관 지정·24시간 상담 등

광주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8일 시청 사거리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출근길 운전자를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펼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5월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캠페인을 이어간다. 각 자치구도 찾아가는 우울감, 도움기, 관, 가가호호 방문 캠페인을 통한 위기 기구 발굴, 관계기관 연계 체험 프로그

램 운영 등 지역 밀착형 활동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경제적 위기나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자살위기 대응을 위해 자살예방관 지정,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1인가구 생명지킴이 운영,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치료 연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제공,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등 총출력 안전망을 구축한다. 배강숙 시 건강위생과장은 “봄철은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 예방과 시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주변의 작은 신호에 관심을 갖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